

'白鷺의 법음' 보고 듣길 발원

산문박의 禪

백로사진 25년 허형구 변호사

창상은 드높고
하늘빛은 나를 반겨
풍운하듯 험하든
그 마음 변치않고
사시로 푸르려
언제나 한빛이여라

일편 변호사대로, 사진을 찍을때 사진작가의 모습대로 자연스럽기가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는 힘을 지녔다. 마치 수십년의 어려운 수행 끝에 견성(見性)의 단계에 도달한 구도자가 하나의 집념아래 겪어 온 고난의 과정을 법음의 단계로 승화시키듯.

"내가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자연될 수 있을 때 뿐이야."
허변호사를 마주하고 있는 동인은 누구나 이미 법관도 생활인도 아닌, 삼매에 빠져 자연과 자신이 하나이기를 갈구하는 구도자의 풍모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백로를 닮아 있음을 알게 된다.

25년동안 카메라를 메고 '떠나기'를 계속해 온 그는 백로를 담아내는데 전력해 왔다. 고고하면서도 거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으면서도 울골아 보이는 백로의 자태가 일평생 법관의 길을 걸어 온 그에게 말없는 스승이 되었기 때문이다.

"어릴적 우리 농촌마을 뒷동산이나 푸른 들밭에는 언제나 백로가 푸른 창



도필선 기자

**"길을 떠나면 진실한 자연과 만나고
자연의 순리를 모두 담아 놓으려
설새없이 셔터를 눌러 댔지요
얼마나 부끄러운 중생의 집착인가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공을 힘차게 비상하거나 정다운 모습으로 유희하며 짝을 이루고 있었지. 자연을 병풍삼아 정결게 노니는 백로를 보면서 나 아닌 남을 포용할 수 있는 여유로움을 배웠고, 자유인을 꿈꿨던 것 같아."

백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의 모습이 어느새 소나무 가지에 앉아 창공을 바라보는 백로를 연상케 한다. 무어라 경이 없을 것 같다.

허변호사는 여유가 있을때면 백로를 찾아 나선다. 우리나라 백로 서식처는 가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수 많은 여행을 했다. 그가 여행을 그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그동안 찍었던 백로의 모습에 스스로 얽매어

상(相) 아닌 상을 세워 둔 것은 아닌 가 하는 조바심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그의 선천적인 구도열정이 더 큰 이유 일 것이다.

"백로의 수많은 움직임은 하나의 움직임으로 렌즈에 집중시키고 그 속에 모든 삶을 응축시키는 경지를 체험 하고 싶어. 모든 형상을 틀어 얽매이지 않고 표현할 줄 아는 자유로움이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 아닐까? 내 사진을 보며 부처님이 설하신 제행무상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를 향한 나의 메시지거든."

허변호사는 어떤 자리에서건 편을 얘기하길 꺼린다. 좋은 일이면 나쁜 일이든 입버릇처럼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부인과 함께 1년에 몇차례 짝에 가는 것이 고작인 자신이 '선적인 삶'을 얘기한다는 것은 선사들의 문답과 기행(奇行)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생활현장을 선방으로 여기고 치열하게 정진하듯 법관으로서의 역할과 사진작가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할 뿐이라는 것이다.

허변호사는 그렇게 화려하지도 요란스럽지도 않고, 질박한 모습으로 은근한 멋을 풍기는 한국의 대자연 속에서 부처님의 모습(妙音)을 듣는 법을 알고 있다. 그 소리를 전해 주는 것이 바로 백로들이다. 그래서 그의 렌즈는 백로의 외형을 담는 것 보다는 자연 속의 법음을 담는 도구가 된다.

법을 다루는 사람은 그 법에서 해방되기가 쉽지 않다. 그가 다루는 법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규정하는 것이 라면 그가 찾는 법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마침내는 해탈케 하는 '법종의 법'이다. 언젠가는 백로를 찾아 나서지 않아도 카메라를 잡지 않아도 그 '진짜 법'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고희의 나이를 젊게 만들고 있는 것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결집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저 부처님을 닮기 위한 내 나름의 노력이지."

천도재는 왜 하는 것입니까

문 조상에 차례상 올리고 기일이 되어서 제사지내고 때로는 천도재를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조상을 공경하는 뜻은 알겠는데 이미 가시고 인계신 분이니 그냥 마음으로 공경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홍정희·경남 양산군 양산읍)

답 사람은 죽어서 몸이 없어진다해도 생전의 의식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그 차원 그대로 인체 몸을 만나면 빠져 죽을까 겁내고 불을 만나면 타 죽을까 무서워 합니다. 그러나 죽어서도 그 업식은 내 자식 내 부모에 착을 돕니다. 사람들은 그 업식을, 영상이라 해도 됩니다. 그걸 보지 못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그것을 돕니다. 어떤 형상으로 보든가 아니라 생전의 마음자리를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 마음자리를 밝게 이끌어 주기도 하고 마음자리에서 통신을 하기도 합니다.

천도재를 지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영식의 마음자리를 보기 때문입니다. 조상님 앞의 상을 차려놓고 절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의 영식이 생전의 마음자리 그대로이니 자손

살아서 이 육신 있을때 공부하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천도하는 것도 부모님 돌아가시고 천도재할 게 아니라 생전에 천도해야 더 빠르고 좋지 않을까요?
(하인영·경기도 인천시 원시동)

답 잘 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네들이 어디엘 가나 누구를 만나거나 간에 마음공부 하라고 신선담부하지 않던가요? 부모나 자식이 안하더라도 본인 만이라도 하라, 그러면 부모 주인공이나 자식 주인공이나 다 내 주인공과 한 뿌리 한 근본이니 내가 뿌리에 물을 주면 거기에 붙은 가지와 잎이 다 싱싱해지듯이 마음으로 통신이 된다. 그래서 서로서로 몸도 건강해지고 지혜도 열리고... 얼마나 좋은 법인지 아니냐 하고 몇백번이라도 말씀드리지 않던가요?

사람들끼리 인연따라 모여서는 모습을 보면 개리개리 만난단 말입니다. 금은 금기에 만나고 은은 은기에 만나고 강풍은 강풍끼리 만납니다. 그게 업보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비록 강풍끼리 만났다 하더라도 끝내 강풍으로만 살면서 말그렇달그라 합니까? 그중에 누구라도 마음도리를 공부해서 강풍의 업보를 녹이고

지 상 상 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심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시고요.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미유신원 대법스님에게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재개제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들도 생전에 모시던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과 마음으로 통신이 되어 조상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조상님 마음과 하나로 돌아갈 수 있다면 마음의 공경이 즉발로 통하긴 하겠지만 도리를 뚜렷히 알지 못하고 그저 생각만으로 그렇게 하니 한다면 서로 통하질 않아서 빈 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히 상 차릴 형편이 못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마음으로 하면 되니 하고 건성으로 넘길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도리를 알고보면 내 마음안에 부모 조상님이 다 계시고 보살 신종도 다 있으니 삶이 그대로 부모 모시는 제사요 부처님께 공양올리는 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상님의 참근본을 알 때에 그렇다는 얘기고 다란 조상님의 중생적 모습만 본다면 마음으로 나와 조상이 하나되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누구보다도 내가 조상님을 잘알고 돌아가신 것도 잘 알기에 내가 조상님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잡이로서 천도제도 지내고 때를 맞춰 상 차려놓고 마음으로 하나되어 이 도리를 아시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 일일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조상공경도 그렇게 하면 통하게 되어있습니다. 통하긴 하면야 마음의 떡 하나, 마음의 훗물 하나로도 한자리에 들게 되겠지요.

생전 천도가 더 좋지요

문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육신을 떠나고 나면 공부할 수가 없으니

새로 금으로 화해가 된다면 위로는 강동 부모에게 빛이 되어주고 아래로는 강동 자식에게 빛이 될게 아닙니까?

내 경험을 한가지 얘기해 드리지요.

어떤 할머니 한분이 찾아와서 울며 하소연하는데 손주녀석이 좀 못되게 군다는 것입니다. 등록금을 타가서는 영동한데다 써 버리질 않나, 학교수업을 빼먹지 않나, 어른들의 호주머니를 몰래 뒤지질 않나, 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야만도 쳐보고 매도 들어보고 할머니가 눈물로 호소를 해보아도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공부에 대해 몇달간 일러주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일러 보냈는데 사연이야 어찌 되었거나 그후에도 몇차례나 찾아와서는 내 앞에서 질금 질금 눈물을 보이더라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까,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그 할머니, 그 손주가 다 바로 내 할머니 내 손주 같으니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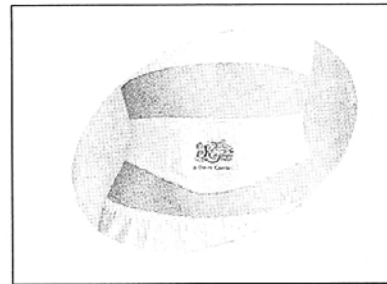
그저서 '말았습시다' 하고 대답을 했지요. 얼마후에 그 할머니가 오셔서 연방 감사하고 해요, 손주가 싹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몸통이는 마음이 끌고 다니는 것이니 몸통이를 달달한다고 되겠습니까? 달구지가 안 움직이면 소를 쳐야하지 달구지를 아무리 친다한들 소가 움직이겠습니까?

마음이 통해야 마음이 녹아지고 업보가 녹아 서로 강풍뿔을 보지않고 뚜렷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도, 천도 하지만 산사람 천도, 죽은사람 천도가 다 들어 아닙니다.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항비를 사용하세요!

항비를 사용한 체험담 (송파구 이남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 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 차 어느분을 통해서 항비라는 조그마한 껍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일이 지나가니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태아가 엄마의 땃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원(배꼽)에 항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유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항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불순, 생리통,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항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쪼들린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뻣뻣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 있다. ()
- 18. 당뇨와감상선으로통한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 080) 200-4545

公 告

해인사 총림 비상대책위는 아래와 같이 산문출송시켰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산문출송 : 불기 2540년 9월 18일 1200

■ 대 상 : 성법, 무착

본 해인총림(비)에서는 가야산 해인골프장 건설 반대운동과 관련 "방해활동"을 저지르는 책임과 강원폐강 등의 어처구니없는 파행적인 중무행정 책임을 물어, 성법(주지), 무착(기획실장)을 산문출송하였으므로 주지 및 기획실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 해인사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승려들입니다.

이후 해인사 선원과 강원도의 안정된 수행풍토 정착과 해인총림수호를 위한 사부대중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불기 2540년 9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제12교구본사 해인사 총림 비상대책위원회